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인간에게 있어서 원숭이만 무엇인가? 웃음거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수치, 위버맨쉬(Ubermensch극복인)에게 있어서도 인간은 꼭 그와 같은 존재. 즉, 웃음거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수치, 그대들은 별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으며, 많은 점에서 아직도 별레,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지금도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이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1896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발표한다. 이 교향곡은 1883년 발표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다. 슈트라우스의 작곡의도에 대해 "나는 철학적 음악을 쓰려는 것도 아니며, 니체의 위대한 저작을 음악으로 그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으로 인류의 기원과 발전의 여러 양상을 니체의 극복인(위버맨쉬)이라는 관념에 이르기까지를 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위버맨쉬는 종래의 단일한 인간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인간유형이며, '성령'과 '속삭'을 뛰어넘은 인간이다.

아모르 파티 Amor Fati -니체-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영향을 받아 만든 곡이다. 슈트라우스의 작곡의도에 대해 "나는 철학적 음악을 쓰려는 것도 아니며, 니체의 위대한 저작을 음악으로 그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으로 인류의 기원과 발전의 여러 양상을 니체의 극복인(위버맨쉬)이라는 관념에 이르기까지를 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위버맨쉬는 종래의 단일한 인간을 뛰어넘은 깨달음의 인간유형이며, '성령'과 '속삭'을 뛰어넘은 인간이다.

1968년 개봉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A SPACE ODYSSEY가 있다. 아서 클라크와 함께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를 바탕으로 서사구조를 가져와 니체의 철학을 영상화한 작품으로 영화와 소설로 출판했다. 현재까지 어느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SF영화 분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이다. 유인원으로 시작해서 어린이어로 끝나며 관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친절한 영화이다. 이런 영화임에도 스타워즈, 인셉션, 예반겔리온, 인터스텔라 등 SF영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의 바탕이 니체의 작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철학역사 전체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하기에 접근성이 어렵다.

아서 클라크와 스탠리 큐브릭의 입장에서 아날로그 시대에 디지털 시대를 오직 상상에서 의존해 구현했다는 것은 니체가 말하고자하는 위버맨쉬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로그에 의해 제작된 영화이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시절이었으며, 디지털 기술 또한 없던 시절에 그들은 미래를 상상하며 구현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HAL 9000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와 결이 같다. 스탠리 큐브

릭은 다음과 같이 이 영화의 제작의도에 말했다. "이 영화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룬 것입니다.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경향이 자기 내부에서만 설명될 때, 비로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니체가 전하고자했던 위버맨쉬의 철학적 이야기 중 하나는 인간 정신의 3가지 단계, 낙타, 사자, 어린이이다. 자신이 왜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낙타의 삶과 같은 단계에서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자의 단계를 지나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감각에 집중하는 어린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위버맨쉬가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원한다. 아모르 파티를 노래하며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위버맨쉬의 삶을 누리고 싶다.

사설

또 불통 된 자영업, 대책없이 전더야 하나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일상의 복귀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자마자 무너졌으니 오죽하겠는가.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지난 5월 이후 주말 대부분 하루평균 4만명이 넘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여행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특급호텔은 최근 3일간 260건의 예약 취소 문의를 받았다. 여행사도 오는 8월까지 유치한 단체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상인들도 울상짓기는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나 식당은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자마자 무너졌으니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어 자영업자들은 속이 맑아 아니다. 4차 대응방조치를 보이면서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경이 어찌겠는가.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권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확진자 중 수도권 내 변이 검출률은 39.3%에 달할 정도로. 당분간 코로나19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이유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종지부' 찍자

제주사회 최대 이슈였던 영리병원 제도도 존재 여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여당의원과 국회의원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인 반면 제주도는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년 선거시 쟁점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리병원은 이미 지난 2018년 속의형 공론조사 등을 통해 다수 반대 의견을 확인한데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조항을 폐지해 더 이상 갈등 유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은 최근 한 단체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도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폐지'에 대한 도민들 뜻을 모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을 겪어온 영리병원 문제를 매듭지을 때가 된만큼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다수의 의회회는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병원 개설 특례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최종 의견을 모은 상태다. 반면 도는 의료기관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 부작용 최소화로 영리병원 제도를 유지키로 해 언제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별책'을 남겼다.

그간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허가불가 58.9%, 허가 20%로 압도적인 도민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 영리병원이 제2공항사업처럼 도민 여론조사로 '반대'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다시 '결과'를 무시하는 정책추진을 해서야 되겠는가. 도민사회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분열·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영리병원 존·폐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선 안 된다. 원 도정이 계속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 갈등을 키운다면 도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마당

청정 제주의 또다른 얼굴 불법광고물



강석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매일 아침 8시 40~50분 쯤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민원인의 고요의 향의와 호소가 이뤄진다.

전날 도로변이나 사유지 내 내걸어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항의와 호소연이다.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기 위해서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적법한 장소에 설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광고주들은 개인의 광고만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서 도로변이나, 전주 등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강풍 등의 자연현상 시 사고가 아닌 흉기로 돌변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재를 발생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에서는 지역 내 자생단체들과 협조해 합동으로 순찰반을 운영 하고 있다.

순찰반은 정비활동을 하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오늘도 여전히 출근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는 계속 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험한 불법 광고물이 없는 청정한 제주의 도심 거리를 원하신다면 행정만의 작사량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욕심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희룡 지사 사퇴 무기한 연기

코로나 확산세 심화 여파

구든지 이용 가능.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용하면 제주특별법 제정된 뒤부터 처리만 거쳐 민원실 직원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발급한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

원 지사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이달 사퇴할 예정이었으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자 사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고 일단은 코로나 방역과 여름철 재해 예방에 집중하기로 결정.

한 측근 인사는 "제주 방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임을 1~2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하는 것 같다"며 "사퇴 시기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

사회적 배려 대상 위한 도움벨

이들은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보인 농식품부의 부정적 시각과 국회의 단일한 처리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

이에 "13일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도음벨은 분청 중앙현관 및 장애 진출입경사로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민원실 직원이 찾아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로, 민원인이라면 누

구든지 이용 가능.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용하면 제주특별법 제정된 뒤부터 처리만 거쳐 민원실 직원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발급한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 오은지기자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화 촉구

이들은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보인 농식품부의 부정적 시각과 국회의 단일한 처리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

이에 "13일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도음벨은 분청 중앙현관 및 장애 진출입경사로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민원실 직원이 찾아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로, 민원인이라면 누

구든지 이용 가능.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용하면 제주특별법 제정된 뒤부터 처리만 거쳐 민원실 직원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발급한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 오은지기자

분묘개장공고(1차)
정사등여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처사)
피고인 강동윤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구철서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김구석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고상훈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처사)
피고인 서상범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배현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식식품의학원 SCI A급 등록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